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중국 창업 NEWS

- ▶ 에어비엔비 중국시장 좋지 않은 평판, 활발한 투자 상장을 위한 포석? (신랑테크, 2019.4.25)
- ▶ 중국 AI 기업 작년 용자 157 억 달러, 일회 평균 6000 만 달러 이상(신랑커지, 2019.4.26)
- ▶ 인공지능 건강관리(신랑커지, 2019.4.26)
- ▶ 비밀번호에서 지문인식까지 스마트 도어락의 발전(이어우, 2019.4.27)

중국 전문가 ISSUE

- ▶ 5G 일보 (2019.4.24-2019.4.30) - KIC 중국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2019.4.30)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74) (2019.4.25) - 윤형건 교수 제공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

- ▶ IT오렌지 주보: 4/22~4/28까지 있었던 87개 국내 투자/합병건(IT오렌지, 2019.4.29)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깊어지는 미-중 신냉전 일본이 연계해야 할 '파이브아이즈' 제국(Voice, 2019.4.28)
- ▶ 미국 주가 상승으로 연휴 다음날 일본 주가 동반 상승 축하 분위기속 매입 기대(LIMO, 2019.4.29)
- ▶ '일대일로' 국제싱크탱크 결성을 제창 '신 (新)유엔'을 세울 기세(산케이신문, 2019.4.30)
- ▶ 미국이 채색하는 중국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한반도의 미래(JB PRESS, 2019.4.30)

주간 중국 창업 NEWS

1. 에어비앤비 중국시장 좋지 않은 평판, 활발한 투자는 상장을 위한 포석?

(新浪科技, 2019.4.25)

연초부터 최근까지 에어비앤비(Airbnb) 인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3 월 Airbnb 는 호텔을 예약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호텔 투나잇(HotelTonight)을 인수한 바가 있다. 이 회사는 당일 저녁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4 월에 Airbnb 는 호텔 OYO 투자를 확인했고, 한 소식통에 의하면 투자액은 약 1 억 5 천만 달러에서 2 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Airbnb 는 관광커뮤니티, 레스토랑, 모바일페이 활용 등 많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거액의 투자는 Airbnb 의 업무를 투자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계획과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미 2017 년 에어비앤비 브라이언 체스키 CEO 는 2018 년 IPO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2019 년 들어 에어비앤비의 자본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상장 시점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2017 년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중국어 브랜드명과 새 로고를 선언할 정도로 중국 시장을 중시해 왔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저평가와 중국 시장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시설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중국 사업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실정이다.

끊임없는 매수 움직임

Airbnb 발표에 따르면, 올해 6 월에 HotelTonight 에 대한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며 거래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참고로, HotelTonight 회사는 2017 년 3 월에 최근 용자를 완료한 후 기업가치는 4 억 6300 만 달러로 평가됐으며 또한 올해 4 월에는 호텔 OYO 에 대한 투자를 확인했다.

Airbnb 는 최근 몇 년간 두 개의 인수 외에도 독특한 제품 판매 체험에서부터 신제품 'Airbnb Trips' 출시, 관광 커뮤니티 플랫폼인 'Trip4', 레스토랑 예약 AppResy 와 모바일페이어플 Tilt 그리고 2017 년 럭셔리 호텔 예약 플랫폼인 Luxury Retreats 까지 순차적 인수가 이뤄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Airbnb 는 일찍이 2017 년 IPO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2017 년에는 Airbnb 의 에어비앤비 브라이언 체스키 CEO 는 준비했던 공개 상장의 '2 년 과정'이 절반 넘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2018 년 IPO 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08 년 설립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중국어로는 '空中食宿(空中食宿)'이다. 설립 이래, Airbnb 는 거의 10 라운드를 얻었으며 금액은 40 억 달러의 거액의 용자로 총액은 최대 310 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 시장 포위망을 뚫다

전 세계를 누비는 에어비앤비는 중국 시장을 중시한다. Airbnb 는 2015 년에 중국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여 2 년 후인 2017 년 3 월 22 일 상하이에서 에어비앤비 브라이언 체스키 CEO 는 에어비앤비의 새로운 중국어 브랜드 이름 및 새 로고를 공식 발표했다.

펑타오(彭韬)는 지난 8 개월 동안 마케팅, 제품, 데이터, 운영 등의 기능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다원화된 현지팀을 만들었다. 현재 중국은 에어비앤비 여러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운영진과 제품팀을 보유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한 사람은, '4 월 24 일 나와 집주인이 모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적이 없는데도 보름 전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었고, 웨이보(微博)에서 검색한 결과 이런 상황이 본인 뿐만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불과 10 여 분 사이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불만 건수가 최소 12 건에 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발 며칠 전 아무 이유 없이 취소돼 집값을 다시 예약해야 하는 비용이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아직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온라인 단기주숙시장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간의 인터넷 배당금 및 소비 상승으로 단기주숙은 하나의 레드오션을 형성했다. 에어비앤비도 중국 시장 공략에 많은 경쟁자를 맞고 있다. 예를 들면, 메이투완(美团)산하의 헤이즐넛(榛果), 샤오주단주(小猪短租), 마이단쭈(蚂蚁短租), 지아바이지아(住百家) 등.

'5 월 1 일' 기간 동안 펜션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 인기인 숙박 도시는 베이징(北京), 청두(成都), 충칭(重庆), 시안(西安), 상하이(上海), 과저우(广州), 광저우, 우한(武汉), 칭다오(青岛)순이다.

4 월 20 일, 메이툰이 발표한 '2019 도시 민박 창업 데이터'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숙박 이용자의 65%가 1990 년생 후반 및 1995 대 후반으로 젊은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중시해 47.6%가 100~200 원짜리 숙박을 선택하며, 300 위안 이하인 숙박 이용자가 80%를 차지했다.

헤이즐넛 숙박의 펑웨이허(冯威赫) CEO 는 '중국의 숙박의 호텔 점유율은 2.5%로, 37%인 영국에 비해 아직도 공간이 많다. 중국 숙박시장은 앞으로 5 년간 6~8 배 성장할 여지가 있고, 2023 년에는 국내 숙박 대 호텔 점유율이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 중국 AI 기업 작년 용자 157 억 달러, 일회 평균 6000 만 달러 이상

(新浪科技, 2019.4.26)

WUZHEN INSTITUTE(乌镇智库)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인공지능 투자자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중국 인공지능 기업은 작년 용자액이 157 억 달러에 달할뿐만 아니라 260 회 용자동안 일회 평균 용자액 6000 만 달러를 넘는 엄청난 수치를 보였다.

이런 엄청난 용자액의 배경하에 인공지능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2018 년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은 총 15916 개이며 그 중 중국은 3341 개로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일회 평균 용자액으로 “동청구(东城区, 베이징(北京)의 중심지) 아파트 45 채” 매입 가능

최근, WUZHEN INSTITUTE 에서 발표한 <전 세계 인공지능 발전 고보서(2018)>(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자본 유동이 가장 활발했다.

2018 년 중국 인공지능 기업 용자 규모는 157.54 억 달러로 아시아 인공지능 기업 용자의 93.09%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 용자액의 46.94%에 달한다. 중국 인공지능 기업은 262 회의 용자동안 일회 평균 6013.08 만 달러 용자를 달성했다.

WUZHEN INSTITUTE 는 “이 금액으로는 베이징 동청구의 100^{m²}(30.25 평) 아파트 45.49 채를 살 수 있다.”고 전했다. 동청구는 교육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높은 수준의 초등교육으로 유명하다. 동청구 교육 지역 아파트 시세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회 용자 금액으로 동청구의 100^{m²}(30.25 평) 아파트 45 채를 살 수 있을만큼 인공지능 기업은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2018 년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의 총 용자액은 784.8 억 달러이다. 그 중 미국이 373.6 억 달러이고 중국이 276.3 억 달러로 2 위에 위치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 텐진(天津), 허베이(河北)지역의 기업들이 특별히 많은 투자를 받고있다. 2018 년까지 정책 지원, 자본 지원, 인재 지원, 기술 발전 등 중국에 남아있는 AI 기업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1035 개, 30.98%), 장쑤(江苏),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지역(892 개, 26.70%), 광둥(广东), 홍콩, 마카오 지역(841 개, 25.17%) 세 곳의 경제 발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WUZHEN INSTITUTE 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의 AI 산업 누적 용자액과 용자 횟수가 각각 153.99 억 달러, 472 회(용자 금액을 공개한 용자 활동)로 가장 높으며 해당 지역의 일회 평균 최고 용자 금액은 3262.54 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WUZHEN INSTITUTE 는 전 세계 인공지능 회사의 창업 열기는 이성적인 추세로 향하고 있다면서 미래 AI 기업의 발전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가 필요하며 시장도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착 능력을 더욱 관심있게 볼 것이라고 전했다. 용자 라운드 방면으로 보면 초기 라운드(시드 라운드와 엔젤 라운드)의 용자 빈도가 2017 년에도 일정한 성장을 보였으나 2018 년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공지능 기업의 주요 투자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업으로 집중되어 새로 창립한 회사가 시드 라운드나 엔젤 라운드를 유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중국 여러 지표에서 앞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범위 내 인공지능 분야의 여러 지표에서 1 위를 차지, 인공지능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지능 연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중국의 인공지능 특허 분야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 년부터 2018 년 십년동안 중국의 AI 특허 수는 68467 건으로 세계 일위이며 2 위인 미국의 30200 건 보다 2.27 배 많은 수량이다. 도시 분포로 보면 전국 5 위의 도시 중 베이징의 비중이 절반에 해당하여 AI 산업의 고지를 형성했다. 선전(深圳)은 주산자오(珠三角)의 대표 도시로 5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다. 창산자오(长三角)의 도시 중 상하이와 난징(南京)이 순위에 들었으며 중서부 지역의 청두(成都)가 5 위로 난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발표된 논문의 수는 과거 10 년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1 위의 자리를 유지했다. 2009 년부터 2018 년까지 중국의 AI 논문 수량은 30303 편에 달하여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섰다. 그 중, 중커원(中科院)이 전 세계 AI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기관으로 총 2500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십 년간 전 세계와 중국의 논문 수량의 각각 2.1%와 8.2%를 차지한다.

또한 중국의 인공지능 용자액과 기업 숫자도 세계 선두에 속한다. 2018 년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은 총 15916 개이며 그 중 미국 4567 개, 중국 3341 개, 영국 868 개로 TOP3 를 형성했다.

3. 인공지능 건강관리(新浪科技, 2019.4.26)

인공지능은 탄생부터 의학과 떼어 수 없는 관계였다. 신경생리학과 신경해부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실현"하는 것은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의학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인공지능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고, 인공지능의 기술 혁신과 확대가 의료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AI 기술은 임상 보조진단, 의학 영상, 뇌과학은 물론 중의학 등 의학 분야에 파고들고 있다. 의학 영상의 경우 현재 인공지능이 폐 질환, 유선 질환, 신경계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에 사용되고 있다. 빅 데이터에 뿌리를 둔 인공지능 알고리즘 덕분에 의사는 질병 검사와 진단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과학적으로 치료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약연구개발 과정 중 딥러닝이 이용되어 연구개발의 기간을 단축시키며 연구 개발 원가를 조정하여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일부 큰 병원에서는 의료로봇이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 모니터링, 환자 간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은 의료 생산력을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응용은 의료 서비스 모델, 건강관리 의식의 변화를 촉진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도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 홈 스마트 건강검진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약 사용법, 건강 모니터링 등에서 인공지능은 일상화, 세분화된 지도로 특정 단체에 전방위, 주기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질병 예방을 강화하고 만성 질병의 관리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 의식을 높여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의학 기초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밀한 의료의 폭넓은 가능성을 개척해 인류가 각종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빅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발생은 확률에 의한 전염 과정이 아니라 특정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의사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보편화 방안만을 믿고 따르면 빅 데이터에 의해 잘못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환자의 특정 상황을 간과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 치료는 환자를 위한 하나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화에서 예방치료에 입각하고 유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람마다 다른 특징의 치료법을 적극 개발시켜야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정교한 진료를 행할 수 있다.

4.비밀번호에서 지문인식까지 스마트 도어락의 발전(亿欧网, 2019.4.27)

스마트 도어락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생활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일반 잠금 장치 대비 스마트 도어락의 문을 여는 방식은 많으며, 안전율도 높다. 스마트 도어락이 생긴 후부터 지금까지 주로 바코드, 마그네틱 카드 식별, IC 카드 식별, 생활 식별의 발전 과정에 경험됐다. 그 잠금 방식의 업그레이드는 스마트 도어락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의 경험도 향상시킨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스마트 도어락을 통해 문을 여는 방식은 어떤것이 있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문인식 기술은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스마트 도어락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

스마트 도어 잠금장치는 다양한 디자인과 오픈 클로즈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삶을 가져다준다. 시중은 많은 스마트 도어가 판매되고 있는데, 스마트 도어의 문을 여는 방식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다.

비밀번호로 문 열기

비밀번호 방식은 주로 금고 및 금융업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출입이 편리하도록 하기위해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비밀번호 방식이 사용된다. 전통적인 열쇠 잠금장치보다 문을 여는 방식이 더 편리하며 하루 종일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 게다가 매우 안전하다. 비밀번호 방식은 편리도가 매우 높아 거의 스마트 도어마다 채택되는 잠금 해제 방식이다.

APP 원격으로 문 열기

스마트 잠금과 전통적인 기계 잠금에 비교해 하나의 '스마트' 속성을 더한 것이다. APP 원격으로 문을 여는 방식은, 하나의 게이트웨이의 카메라를 배치한 뒤, 스마트폰에 스마트 홈 APP 를 설치하며 위챗이나 QQ 를 연결 할 수 있으며, 친한 친구들끼리도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다. 택배가 도착했거나 친지가 방문했는데 주인이 집에 있지 않거나 문을 열기 불편할 경우 휴대폰을 통해 문 밖을 본 뒤 원격으로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카드식 문 열기

전통적인 열쇠 말고도 자물쇠를 여는 방식이 더 있는데, 예를들어 호텔,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식 자물쇠가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카드식 스마트 도어락이 있으며, 사용자가 문을 열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블루투스로 문 열기

블루투스로 문을 여는 방법은 사실상 카드식과 비슷하지만, 휴대폰 블루투스방식 보다 더 고급스럽다고 볼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블루투스로 도어락을 연결해 문을 열 수 있다. 일반 카드보다 보안성이 훨씬 높다. 카드를 사용하여 문을 여는것보다 블루투스로 문을 여는 것이 훨씬 편리하며, 만약 손님이 방문했는데 부재중이라면 원격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손님이 직접 문을 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보안성을 자랑한다.

지문으로 문 열기

지문은 하나의 복잡도가 높은 '신분 코드'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지문 잠금해제 방식은 광학 지문인식과 반도체 생체지문인식 두 가지이다. 광학 지문인식 기술에 비해 생체 지문 인식 기술의 안전성이 훨씬 높아 많은 스마트 도어에 생체 지문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지문인식 기술의 안전성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각각의 지문마다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몇 개 있고, 각각의 특징에는 약 일곱 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의 열 손가락은 최소 4,900 개의 독립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징을 만들어낸다. 지문인식 기술은 측정할 수 있는 지문의 특징점을 분석해 그 중에서 특징치를 추출하여 인증하고 신원을 확인한다. 각 사람들은(지문을 포함해) 피부 결의 패턴, 단절점, 교차점에서 각기 다르다. 다시 말해 유일하며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스마트 도어락은 지문 인식 기술을 채택한다.

현재 스마트 도어 제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문으로 문(잠금)을 해지하는 방안으로는 광학 지문 인식과 정전식 지문인식 두 가지가 있다. 광학 지문인식은 출퇴근 지문 기록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원가가 낮고 인식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생체인식 기술을 집적하지 않아 조작된 지문막을 통해 쉽게 해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펄프식 정전식 지문인식 기술은 인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사용 방식도 자연스러운 손도장을 누르는 것처럼 인식모듈에 갖다대면 인식이 가능하고, 게다가 작동원리 때문에 정전식 지문인식은 진피층을 직접 측정하여 식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 잠금의 가장 흔한 잠금 해지 방식 중 하나가 되었다.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5G 일보** (2019.4.24-2019.4.30)

5G 위챗 공식계정은 5G, IoT, IoV(Internet of Vehicles)를 보도하는 신매체플랫폼입니다. 본 자료는 5G 위챗 공식계정에 올라온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5G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info@kicchina.org로 문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 최초! 차이나 모바일(中国移动) 5G 지하철 개통(5G, 2019.4.27)

청두(成都) 10 호선에서 청두 ECONOMIC DAILY(成都商报)가 처음으로 5G 폰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기사는 5G 폰을 통해 다른 칸에 있는 엔지니어와 세계 최초로 지하철에서 5G 영상 통화를 했다.

현장에선 안정적인 5G 신호와 선명한 화면, 끊김과 지연이 없는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청두 지하철 10 호선 상류공항(双流机场) 2 터미널역부터 타이핑위안(太平园)역 구간은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가 배치된 노선이 됐다. 10 호선은 다음 달 중순까지 양 방향에 5G 네트워크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승객들은 5G를 통해 VR 게임, 360° 스포츠 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차이나 모바일 쓰촨(四川)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두의 지하철이나 해발 수천미터의 찬시(川西)고원, 모든 곳에 쓰촨지부는 5G 네트워크를 배치, "입체식"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한다.

현장 체험: 차이나 모바일 5G 폰, 칩과 번호 교체할 필요 없어

현장 테스트 결과 10 분의 영상통화동안 음질과 화면 모두 선명한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칩과 번호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쓰촨지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의 성공으로 쓰촨지부는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5G 액세스를 지원하는 능을 갖추게 됐다. 특히 80km/h 가 넘는 속도에서 고품질의 통화 지원은 전 세계 5G 지하철 기술 혁신 응용에도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두 지하철 5G 건설로 "청두 속도" 부각

반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청두 지하철 10 호선 5G 네트워크의 엄청난 발전에는 쓰촨지부와 청두 지하철의 긴밀한 협력과 밤낮으로 수고한 노력이 있었다.

기술 전문가에 따르면 지하철의 5G 네트워크 배치는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쓰촨지부는 화웨이(华为), 쓰촨철탑(四川铁塔), 청두 궤도 교통 그룹(成都轨道交通集团)과 함께 청두 지하철 10 호선 5G 네트워크를 건설하며 여러가지 세계 유일의 기술들을 적용, 청두 사람들의 자부심을 키웠다. 쓰촨지부와 청두 지하철의 협력도 높은 효율을 보였다. 매일 청두 지하철과 쓰촨지부는 당일 운영 상황에 따라 공사 지점을 확정, 야간 지하철 운행이 마치면 지하철 직원이 가장 먼저 점검을 한 후 쓰촨지부의 공사 직원이 투입돼 5G 건설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현재 지하철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주로 젊은 청년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여 네트워크 통시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다. 지하철 열차는 밀폐식 합금재료로 신호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긴다. 또한 좁은 터널에서 빠른 이동 속도와 안정적인 신호 유지는 높은 수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은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열차 한 칸에 수백명의 사람이 동시에 휴대폰을 사용,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여 네트워크 안정성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청두 지하철 10 호선은 이미 일상에서 사용되는 노선으로 낮에는 바쁘게 운영되어 공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관련 직원은 "보통 밤 11 시 이후 마지막 열차가 도착하면 지하철 직원이 점검을 마치면 공사 직원들이 투입됐다"며 공사 시간은 2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공사 지점을 두 세번씩 확인해야 했다고 전했다. 특히 모든 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면 안됐다. 어떠한 도구라도 남아있으면 큰 위험을 초래해 공사동안 계속 신중을 유지해야 했다. 촉박한 시간과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지하철 노선의 장비 설치는 다른 작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달 중순 10 호선 양 방향 전구간에 5G 네트워크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청두는 타이구리(太古里) 전국 최초 5G 상업 시범구역에 이어 세계 최초의 5G 지하철을 보유하게 됐다. 10 호선과 연결된 상류국제공항은 이미 5G 네트워크를 배치,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청두에 와서 5G+VR 을 통해 판다 기지, 두장옌 등의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10 호선을 타서도 5G 네트워크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하철에 5G 네트워크를 배치함에 따라 향후 청두 지하철의 실시간 열차 모니터링, 실시간 승객 정보 관리, 고화질 영상 재생 등 다양한 5G 응용이 가능해져 지하철에 "스마트"함을 더하게 됐다.

2.화웨이(华为) 두 나라에 5G 지원(5G, 2019.4.29)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마하디 수상이 북경에서 열린 제 2 회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자국으로 돌아가 말레이시아 매체에 말레이시아는 화웨이(华为)의 5G 기술 발전 추진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G 위챗공식계정(ID:angmobile)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마하디는 5G 설비 가격이 비싸서 말레이시아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5G 설비 임대" 방식으로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건설을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화웨이가 말레이시아에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건설해준다면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하디는 방중 첫날 베이징 중관촌에 있는 화웨이 연구 센터를 방문하여 런정페이(任正非)가 직접 맞이했다.

런정페이는 화웨이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요를 해결하길 원한다며 신속히 5G 기술을 배치하여 말레이시아의 정보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추진하며 말레이시아의 "4 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통신 및 여러 매체에서는 작년 11 월 5G 기술 연구를 시작하여 3 년 내 5G 기술 정착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및 기타 극소수 연합국에서 화웨이가 제공하는 설비와 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증거 없는 주장을 펼치지만 말레이시아 국제무역 및 산업부장 에나티우스는 난화조보(南华早报)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레이시아와 화웨이의 협력에는 보안 문제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홍선(洪森) 총리는 북경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화웨이 회사의 부총재 리진거(李今歌)를 만나 캄보디아 디지털경제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고 캄보디아 텔레콤과 화웨이 기술(캄보디아) 유한회사 간의 5G 협력 양해각서 체결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리진거는 홍선 총리의 발걸음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홍선 총리의 새로운 정부를 축하한다고도 전했다. 짧은 반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영역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어 캄보디아는 이미 동남아의 경제 발전의 선봉에 있다고 했다.

리진거는 화웨이가 1999 년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20 주년이 되었는데 오랜 기간 캄보디아 정부와 우전부(邮电部)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캄보디아 ICT 산업 발전에 깊이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전했다. 화웨이는 홍선 총리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화 인재에 대한 중시를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ICT 인재 육성과 "사각 전략"의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선 총리 본인은 캄보디아의 정보기술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 보고 스스로를 관리 정보기술 정치인이라고 칭했다. 네트워크는 정보화의 고속도로와 같아 기술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캄보디아도 네트워크 기술 건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캄보디아가 낙후한 기술을 모으지 않고 글로벌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전면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높이도록 화웨이의 도움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리진거의 소개에 의하면 2018 년 화웨이의 매출이 처음 1000 억 달러를 넘어섰고 동대비 19.5% 증가했다. 또한 연구 지출은 전체 한해 수입의 14.1%에 달하며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화웨이 제품과 솔루션기술의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5G 분야에서 현재까지 화웨이는 이미 전 세계 40 장의 5G 상용 계약을 확보했고 7 만 개의 기지를 수출했으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5G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9 년을 캄보디아 5G 발전의 해라고 믿고 5G 최신 기술과 제품을 캄보디아에 전달하여 캄보디아 텔레콤과 5G 글로벌 실전 경험을 공유해 캄보디아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높여 디지털 캄보디아를 구축하고 4 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예정이다.

홍선 총리는 “화웨이는 캄보디아의 오래된 친구이다. 화웨이와 다시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화웨이(캄보디아) 회사와 캄보디아 텔레콤의 5G 협력 체결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동남아국가 중 가장 먼저 5G 선진기술을 이용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3. 중국 국내 최초 5G 파출소(5G, 2019.4.29)

4월 29일 소식에 의하면, 선전시(深圳市) 공안국 바오안(宝安)지부가 관할하는 탕투우(塘头)파출소 (이하 탕투우소)와 선전 텔레콤(深圳电信)은 솔선해서 5G 기술과 경찰 업무 실전 시스템의 응용 결합을 모색하여 중국 국내 최초로 경찰용 드론, AR 고글, 보안 로봇 등 '블랙 기술(인류 최초의 기술)' 제품을 사용한 '5G 파출소'를 설립했다. 5G 기술이 지속되면서 '모바일 경찰 업무'의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다.

탕투우파출소 관할구역 면적은 25.48km²이며 관할 인구는 12.3만 명이지만 인민 경찰은 46명뿐이다. 경찰 인력이 적은 탓에, 치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관할 구역의 치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기술들이 경찰 인력을 보충해주고, '5G+스마트 법 집행 단말기 + 고화질 동영상 실시간 전송 + AI 스마트 인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찰 업무의 효율이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다.

탕투우소에서 경찰 전용 오토바이, 경찰 전용 드론, AR 고글+ 법 집행 기록기가 가시화 비상 명령 지휘 등 '블랙 기술'이 경찰 업무 중에서 끊임없이 사용된다. 탕투우소의 경찰관이 AR 고글을 쓰면 경찰관의 보는 장면이 끊기거나 튕김 없이 손에 있는 스마트 단말에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소개에 따르면, 이 AR 고글은 AI 모듈, 스마트 조정 모듈 그룹 및 OIS 광학 렌즈를 탑재해 얼굴 인식, 번호판 인식, 모바일 법 집행과 원격 지휘 조달에 적용하고, 경찰용 장비와 연결,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달하여 실시간 정보 가시화와 정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경찰 전용 드론은 자동 순찰 모니터링을 통해 4K 화질의 이미지 전송, 경찰 업무 중 범죄자 혹은 수상한 사람의 특징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탕투우소와 드론 기업이 연합하여 경찰 업무 무인기 순찰 항로를 제정했으며, 이미 8개의 항로가 있다.

이 '블랙 기술'은 5G 기술과 떼어낼 수 없다. 차이나 텔레콤(中国电信) 선전 지사의 5G 경찰 업무 항목을 담당하는 덩위(邓宇)는, 4G 시대 경찰 업무 때 사용했던 영상 수집은 끊김 현상이 있었지만 5G의 빠른 속도와 저 지연성은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 지휘부도 편리하게 경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개에 의하면, 선전텔레콤은 해당 관할구역에 4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10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5G를 설치함으로써 이동 광대역(eMBB)의 Gbps 체험속도율을 올리고, 무인기와 경찰 전용 오토바이에 5G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현장 이미지를 경찰업무 클라우드에 전송, 지휘 센터에 목표 표시, 행동 노선, 행동 구역 등 증강현실 정보를 추가해 업무 효율 증가에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공중과 지상이 일체화되는 입체 스마트 경찰 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됐다.

ICO News Letter by PLAYCOIN(2019.4.19)



1. 中 베이징에 최초 블록체인 공증 사무소 열어(tokenpost, 2019.4.22)

중국 최초 블록체인 공증 사무소가 베이징에 문을 열었다고 22 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블록체인 공증 시스템을 통해 공증 보유자는 간단한 코드 스캔을 통해 문서 진위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9 일 베이징 CITIC 공증 사무소에서 진행된 개설행사에서 왕 민리양(Wang Mingliang) 대표는 블록체인 공증이 공증의 가치와 블록체인 검증 방식의 법적 의미를 포괄한다면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공증 사무소 개설이 블록체인 공증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정법대학 경영대 휘 지유(Hu Jiyu)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증 시스템에 비용 절감, 효율성, 안정성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와 투명성을 통해 서류 위조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사기를 방지하고 절차 간소화, 전체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25%에 해당하는 263 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공, 민간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술 활용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중국 광저우는 사업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광저우 황푸(Huangpu) 행정 센터에서 중국 최초 블록체인·인공지능 사업 등록이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2. 중국 스타트업 유니토피아, 스팀급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개발 도전(thebchain, 2019.4.25)

중국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스타트업 유니토피아는 현지 금융 서비스 및 미디어 회사로부터 500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다. 유니토피아는 이를 기반으로 게임 플랫폼이 스팀과 맞먹는 수준의 게임 유통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22 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 비디오 게임 개발 업체 일렉트로닉 소울의 블록체인 연구 조직인 유니토피아는 슈에이무 평화 펀드, 링크후이 캐피탈, 준 조인트 벤처, 디지털 체인 캐피탈, 슈퍼브레인 펀드로부터 500 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수혈받았다.

투자받은 자금을 활용해 유니토피아는 사용자들이 비디오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어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니토피아는 자사 플랫폼에서 모든 게임은 탈중앙화될 것이며, 게임 매출 배분도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제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토피아 외도 투자를 유치하는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4 월초 블록체인 게임 개발 업체인 루시드 사이트는 600 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회사는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자사 게임을 모바일이나 PC, 게임 콘솔과 같은 기존 게임 플랫폼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개발툴을 만들 예정이다.

3. 텐센트 블록체인 기반 게임 '렛츠 헌트 몬스터', 중국서 인기 몰이(newspim, 2019.4.25)

세계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렛츠 헌트 몬스터(一起来捉妖)'가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11 일 출시된 이 게임은 발매 몇 시간만에 1500 만 유저를 끌어모으면서 중국의 애플 앱 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 위에 올랐다.

이 게임은 지난 2016 년 전세계적인 인기를 끈 닌텐도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Pokémon Go)와 캐나다 액시엄젠의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의 장점을 합쳐놓았던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포켓몬고의 게임 방식처럼 위치기반서비스(LBS),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길 거리를 다니면서 수백 종류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의 캐릭터를 키우면서 판매도 가능하다. 게임 유저들은 자신이 키운 '디지털 고양이'를 다른 사용자에게 게임 포인트를 받고 양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게임은 SNS 인 위챗과 연계되는 점이 경쟁력"이라며 "SNS, 결제 등 텐센트 산하 온라인 서비스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렛츠 헌트 몬스터'의 매월 활성 이용자수가 2~3 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뎀레이더(DappRadar)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총 233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 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 간 무역금융에 블록체인 도입(coindesk, 2019.4.25)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국가 간 무역금융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중국의 경제 전문지 '상하이증권보'는 최근 "국가외환관리국이 항저우 블록체인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며 "이 플랫폼은 다중서명 기술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련 업체 및 관세나 세금, 산업, 통상 등을 관할하는 규제 당국에만 공개된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은 수기로 작업하는 문서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돼왔다. 그 결과 복잡한 결제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일어났고, 운영상 위험도 커지면서 전반적인 효율성이 감소해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무역금융 데이터를 입력하면 각종 정보는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번에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수출 미수금, 곧 상품 인도 후 외국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을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체는 금융이나 회계, 대출 상환 등 각종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입력해 국가 간 무역금융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플랫폼은 또 각종 관세 서류 및 세관 신고액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계산해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신문은 이어 "1 차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은 장수성을 비롯해 저장성, 푸젠성, 상하이, 충칭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총 6 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중국 내 여러 은행이 함께 참여해 전국으로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74) (2019.4.25)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공항에는 대기하는 탑승객을 위해 탑승장에 텔레비전이 놓여있다.

대기하는 사람은 무료함에 한 번 눈길을 주지만 계속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그렇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놓인 텔레비전은 제조사의 신제품 광고용이다.



인천 국제공항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 모 기업의 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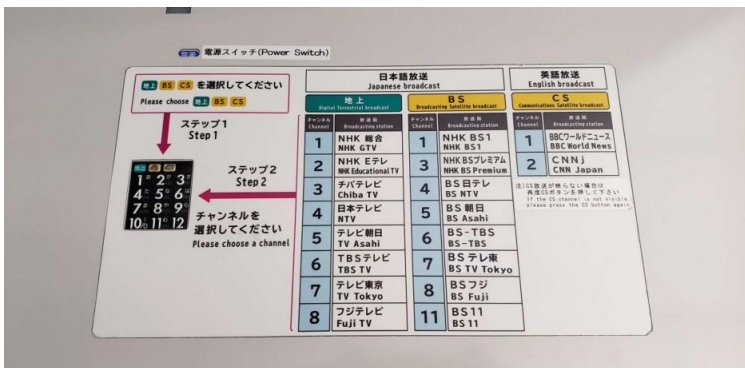
대기자는 별생각이 없다. 요즘은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방해가 된다.

공항 대기 장소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였다. 텔레비전 모델이 바뀌는 것 이외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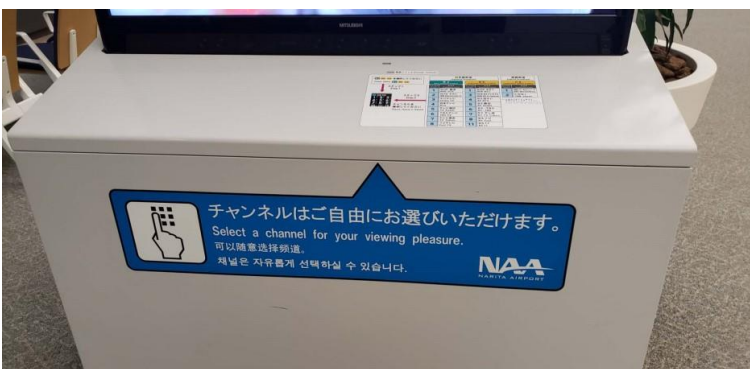
일본의 관문 나리타(成田) 국제공항 대기장소에 설치된 텔레비전, 거치대가 다소 투박하다.

일본의 관문 나리타(成田) 국제공항 대기장소의 텔레비전은 이색적였다.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대기장소에 설치된 텔레비전 거치대에 선택할 수 있는 18 개의 채널

거치대는 투박하였지만, 사람들이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이 자주 보는 공중파 채널 일부분이 있다.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대기장소에 설치된 텔레비전 거치대에 '원하는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하고 적혀있다.

거치대에 '원하는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하고 적혀있다. 원하는 채널을 고르는 방식이 이색적이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고른 채널로 고정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 가정에서 채널 쟁탈전이 일어나, 다툼까지 했다. 그래서 각 방마다 텔레비전을 놓는 가정도 있었다.

중국 및 한국, 기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채용한다면 어떠할까? 간혹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한 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보니, 어느 누구 하나도 채널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도입한지 얼마 안 돼 그런 건지, 아니면 핸드폰, 책등 볼 것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별로 관심이 없다.

최선책의 디자인은 각 나라 문화에 맞추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는 생명체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디자인도 진보한다.

어느 디자인이 우리에게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간혹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IT 오렌지 주보: 4/22~4/28 까지 있었던 87 개 국내 투자/합병건**

(출처:IT 오렌지주보(IT 桔子), 2019.4.29)

IT 오렌지의 지난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4.22~4.28)는 총 87건의 투자/합병이 발생하여 지난 주 82건과 비교하여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서비스 분야가 투자 금융 건이 제일 많이 발생한 업종으로 22% 차지했으며 19건의 투자/합병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료건강 분야가 11% 차지했으며, 10건의 투자 사건이 나타났고, 하드웨어 분야가 3위로 10% 차지하면서, 9건의 투자/합병 사건이 나타났다. 그 중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하위 업종은 업계 정보화 및 솔루션, 데이터 서비스, 아동 교육,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비 전자, 칩셋 반도체, 연예, 의료 기관, K12, 전자상거래 솔루션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라운드로 보면, 평소보다 초반에 발생한 투자가 줄어들고 전략 투자 사건이 증가했다. 이 중 전략 투자 사건이 28% 차지하면서 2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2위는 A라운드 용자가 21건 발생으로 24%를 차지했다. B라운드 용자는 15건 발생으로 17%를 차지했다.

지난 주, BAT 가 오랜만에 함께 투자 동향을 보였다. 텐센트(腾讯)가 투자 속도를 높였으며 징둥(京东)은 루머와 구조조정 처리에 힘쓰느라 투자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알리바바(阿里巴巴)는 1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4 월 23 일, 스마트 CRM 4 월 23 일, 스마트 CRM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 "BIZVANE(商帆科技)"가 B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알리바바가 첫 투자자로 나섰고 화싱(华兴) Alpha 가 단독으로 재무 고문을 맡았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BIZVANE 은 소매업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패션 의류 모바일 제품의 연구, 실시와 서비스 등이 주요 업무이다. 소매 기업을 도와 판매량 상승, 점포 관리 상품 정보 조회와 추적 방문 서비스 등이 있다.

이번 알리바바의 투자에 대해 BIZVANE 의 창업주 겸 CEO 인 장귀칭은(张国庆)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알리바바의 강력한 데이터 및 서비스 능력을 기반으로 알리바바 및 협력 기업과 함께 제품 기능을 발전시키며 '매장'과 '물품'에 더 많은 모델 탐색과 생태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텐센트는 3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1. 모바일 지갑 어플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금융 거래가 신흥 시장 경제체에서 점점 보편화됨으로 인해 중국의 거대 과학기술 기업들이 남미 지역에 관심을 보이며 해외 지불 분야가 격전지로 떠올랐다.

최근, 텐센트는 아르헨티나 모바일 결제 어플 "Uala"의 주식을 매입,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골드먼 삭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스티브 코헨이 해당 회사에 투자했었다.

Uala 는 아르헨티나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아르헨티나 사용자들에게 마스터 카드 우선 결제, 명세서 결제, 교통카드 충전 및 디지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 년 10 부터 2018 년 12 월까지 Uala 는 이미 50 만장이 넘는 우선 결제 카드를 발행했다.

Uala 의 창업주 겸 CEO 인 Pierpaolo Barbieri 는 "텐센트와 협력하여 어플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 양자 건강(量子健康) 텐센트가 투자한 5000 만 A 라운드 용자 유치

양자 건강은 종양 관리 전문인 플랫폼이다. 미국 종양 의료자원을 기반으로 중국 환자들에게 종양 예방 문의, 미국에서 신체검사, 국제 원거리 회진, 국제 원거리 화상 진료 및 미국에 가서 진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자 건강은 텐센트에서 투자한 약 5000 만 A 라운드 용자를 유치했다.

3. <신세대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 발전 보고서 2018>에 따르면 2050 년 중국 노인 소비시장은 60 조 위안의 시장점유율을 보며 국민 경제 발전의 중요한 중심 산업이 될 것이다. 중국 노인 평균 소비 수준이 증가하면서 평균 소비 수준을 넘어섰고 나이든 자본가들이 노인 커뮤니티와 소비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4 월 22 일, 중노년층 커뮤니티 "탕더우 광창우(糖豆广场舞)"가 C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텐센트, GGV(纪源资本), 순웨이 캐피탈(顺为资本), IDG 캐피탈 등이 투자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탕더우 광창우는 광장 댄스를 콘텐츠로 중노년층에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중노년층 커뮤니티이다. 탕더우는 탕더우 어플을 핵심으로 미니 프로그램, OTT 와 오프라인 등 여러 방면의 서비스 행렬을 만들었다.

GGV 의 관리 파트너 리홍웨이(李宏玮)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유아와 중노년층이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수직 분야로 떠올랐다. GGV 는 이년전부터 수직 군중에 깊이 관여하며 배치를 시작했으며 2017 년 말 중노년층에 집중한 탕더우에 투자했다. 탕더우는 중노년층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광장 댄스를 착안점으로 지난 이년동안 건강, 영양 등 사용자 범위를 더 넓은 분야로 확장했다."고 전했다.

바이두(百度)는 2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1. 중국은 날로 환경 보호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재 산업인터넷은 고객들에게 명확한 투자 수익 예상 시기를 알리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환경 보호 솔루션이라는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됐다.

최근, 환경 보호 산업인터넷 솔루션 업체 "iReadyIT(埃睿迪)"는 바이두 벤처(百度风投)에서 투자한 A+ 라운드 용자를 유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iReadyIT 는 기업급 빅 데이터 전체 솔루션 제공업체로 iReadyData 와 iReadyInsights 를 핵심으로한 지적 재산권 체계를 구축, 데이터와 데이터 가치의 발굴에 힘쓰며 데이터 수집, 정리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2. 패션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3D 디지털화가 기업의 중요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4 월 22 일, 패션 소매 솔루션 제공업체 "Linctex(凌笛数码)"가 Vision+ 캐피탈(元璟资本), 바이두 벤처, 인싱구 캐피탈(银杏谷资本)등이 투자한 B 라운드 용자를 유치,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하지 않았다.

Linctex 는 디지털 패션 소매 모델 제공업체로 패션 소매상들에게 디지털화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패션 소매 디지털화의 우수한 공급업체가 되기위해 힘쓰고 있다.

Linctex 는 자체적으로 3D 패션 합성 소프트웨어 Easy Style 을 개발,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자인부터 주문, 온라인 결제까지 모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배송 시간도 3 개월에서 약 15 일로 단축했다.

Linctex 의 창업주 겸 CEO 인 류천평(刘郴曾)은 "향후 패션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가시화, 온라인화, 스마트화이다. 3D 디지털화 정보 흐름을 기반으로 패션 자원의 통합, 생산 관계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래 플랫폼의 통합 및 전 산업 자원의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사슬식의 생산 관계가 그물 점대점 소통의 관계로 전환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1 억 위안 이상의 투자/합병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건강 분야]

4 월 26 일, 의약 판매 플랫폼 "귀야오 온라인(国药在线)"은 3 억 위안의 B 라운드 용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가오터자(搞特价)가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V-capital(一村资本), 은하 위안웨이(银河源汇), Ample Harvest 금융(丰实金融) 등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A 라운드 투자 기관 윈펑 펀드(云锋基金), 랑성투자(朗盛投资)도 이번 투자에 참여했다.

귀야오 온라인은 의약 판매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투약 문의, 의료 및 건강 관리 문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중서약품, 보건품, 의료기기, 한방약, 성인 보건품 등의 제품을 판매한다.

[자동차 교통 분야]

1. 일, 이선도시는 도로, 번호판 및 보유량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다. 4s 점은 이러한 도시들에 집중, 재고비율이 상승하여 큰 소매 수요를 형성했다. 삼선 이하의 도시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소매 플랫폼은 이러한 시장 수요와 일치하여 자본 지원을 유치했다.

최근, 자동차 소매 플랫폼 "YIAUTO(宜买车)"가 1.5 억 위안의 A+라운드 용자를 유치, BLUERUN 벤처(蓝驰创投)와 GGV 가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완스 캐피탈(万世资本)이 용자의 재무고문을 맡았다.

YIAUTO 는 자동차 소매 종합 사이트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중개 상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점을 만드는 O2O 거래 서비스 플랫폼이다.

2. HOZON 모터스(合众汽车) 30 억 위안의 B 라운드 용자 완성

HOZON 신닝위안(合众新能源)은 순수 전동 스마트 자동차 개발업체이다.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과 삼전기 기술을 핵심으로 순수 전동 자동차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며 전 방위 다 방면에 제품라인을 배치했다.

최근 HOZON 모터스는 30 억 위안의 B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산업펀드(政府产业基金)에서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전략투자 캐피탈(战略投资资本)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HOZON 모터스의 누적 용자 금액은 70 억 위안을 넘어섰다.

[교육 분야]

K12 온라인 교육 플랫폼 "양파수학(洋葱数学)" 쿤룬완웨이(昆仑万维)와 Primavera 캐피탈(春华资本)로부터 3 억 위안 새로운 라운드 용자 유치

양파수학은 K12 온라인 이과 교육 플랫폼으로 교수 요목의 중요한 포인트를 간단하고 재미있는 동영상 강의로 제작, 동영상 중간에 연습문제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흥미로운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다.

"양파수학"은 이미 3 억 위안의 D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Primavera 캐피탈이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쿤룬완웨이 등 구 주주들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LIGHT HOUSE 캐피탈(光源资本)이 단독으로 재무고문을 맡았다.

[기업서비스 분야]

통둔 테크(同盾科技) 1 억 달러가 넘는 D 라운드 용자 완성

통둔 테크는 제 3 자 빅 데이터 위험 통제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은행, 보험,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에게 빅 데이터 기반의 위험 통제와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 재산권을 가진 핵심 제품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급 제품과 인터넷 SaaS 제품을 지원하여 기업 위험 관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통등 테크는 4월 25일 일억 달러가 넘는 새로운 용자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CM 캐피탈(招商局资本) 산하의 중바이 펀드(中白基金), GGV, EverBright(光大控股) 산하의 광쿵화딩(光控华登), 귀타이 글로벌(国泰全球) 등의 투자 기관이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신다한스(信达汉石) 등의 구 주주들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또한, 다음과 회사들이 상장했다:

1. 결제 기업 A 주식 등록, 기타 동업자에게 더 많은 믿음과 참고 제공

4월 25일, 제 3자 결제 회사 "라카라(拉卡拉)"가 선전 증권 거래소(深圳证券交易所) 창업 부분에 상장, 발행가격은 한 주당 33.28 위안이며 첫 공개 발행 증권 수량은 40,010,000 주이다. 첫 거래가격은 발행가격 33.28 위안보다 20% 상승한 39.94 위안이다.

2005년에 설립된 라카라는 국내 최초 중앙은행(央行)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제 3자 결제 기업으로 국내 선두의 금융 과학기술 기업이다.

2. 4월 26일 Windey 주식(运达股份) 상장, 발행가격은 6.52 위안/주

Windey(运达风电)는 풍력 발전 기계 설계 생산업체이다. 4월 26일, 선전 증권 거래소 창업 부분에 상장했다. 발행 가격은 한 주당 6.52 위안이며 첫 공개 발행 증권 수량은 73,490,000 주이다.

3. 4월 22일, 즈라이테크(智莱科技) 상장, 발행가격은 30.24 위안

즈라이테크는 스마트 물품보관함 시스템 개발 생산업체로 물품 스마트 보관과 결제 장비의 개발, 생산, 판매 및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스마트 택배 상자, 자동 물품보관함, 스마트 분류함, 스마트 식품 냉장고 등이 있으며 대형 상점, 슈퍼마켓, 테마파크, 수변공원 등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즈라이테크는 4월 22일에 상장했으며 발행가격은 30.24 위안이다.

1. 깊어지는 미-중 신냉전 일본이 연계해야 할 '파이브아이즈' 제국

(Voice, 2019.4.28)



미-중 신냉전시대에 일본의 나아가야할 길은?

미국은 오랫동안, 정보 수집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힘의 원천이 된 것이, 영어권 5 개국 '파이브 아이즈'에 의한 정보공유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사이버 분야에서 급속하게 힘을 키워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란 어떤 조직인가, 미-중 신냉전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정보수집에 정통한 일본대학의 코타니교수가 월간지 <Voice 지상>에서 분석을 게재했다.

※본고는 월간지 <Voice(2019 년 5 월호)>에 게재된 '파이브 아이즈 제국과 연계하라'에서 일부발췌 · 편집한 것입니다.

정보 수집에서 항상 우위에 서 왔던 미국

미-중 '신 냉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정보수집 분야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기관은 중국 제 통신기기의 백도어(정규 수속을 밟지 않고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침입구)에 의해, 다양한 데이터와 기밀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조바심은 물론, 이런 기기에 의해 정보를 빼앗기고 있지만, 아마도 진짜 이유로서는, 미국과 영국이 이전만큼 자유롭게 사이버 공간에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없게 된 것도 관계한다고 생각 되어진다. 양국에서는 스노든 사건으로 인해, 정보 기관의 감시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규제법이 성립되어, 양국의 정보기관이 이전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인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졌다.

또 지난해 5 월에는 페이스북으로부터 위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던 영국 조사회사 케임브릿지, 아나리티카가 폐업에 내몰리게 된 것에서도, 이제는 미국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수집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법률에 의해 국가 안전 보장상 목적이라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장래에 파이브 아이즈의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비교 우위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20 세기의 미국 패권을 지탱한 원천은 강력한 경제력과 정보 수집에서 생성되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고 해도 좋다.

정보 수집에 대해서 회자되는 것은 적지만, 전후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제국과 협력함으로써 전세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도 영국 이외의 유럽제국에 대해서도, 정보수집의 세계에서 우위에 계속 서 왔던 것이다.

미국의 사이버패권을 위협하는 중-러의 실력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이 경제·정보우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작년에 출판된 <사이버공간을 지배하는 자>(일본경제신문출판사)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1)기술적 우위성, (2)산업·정책적 우위성, (3)수적 우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수적 우위성은 이미 중국측에 있고, 기술적 우위성은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하며, 산업·정책적 우위성은 대등한 상황이다.

미국이 기술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술 정보의 유출을 막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타국과의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한 것과 같이 먼저 사이버 전략을 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개별 사이버 정책을 추진, 그것에 관여되는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아가야만 한다.

지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조치는, 당면의 정보유출과 중국기업의 공세에 스톱을 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서, 정책 주도에서 어떻게든 미국의 사이버 패권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측에서 보면, 어떻게든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해 추월하고 싶고, 이미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단독, 혹은 파이브 아이즈 제국만으로 중러연합과 대결해 가는 것은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국제정치의 정석으로, 예전의 세력 균형의 원칙이 머리를 내밀게 된다. 세력 균형이란 패권국을 위협하는 도전국의 대두에 대해, 타국과 동맹을 맺어 그것을 넘어가려는 것이다.

영국은 과거 나치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 잡고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택동의 중국과 손을 잡았다. 지금의 미국이 중-러에 위협 받고 있다면 당연히 편성해야 상대를 모색하게 된다.

미국에서 본 경우 사이버·인텔리전스의 분야에서 든든한 것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이스라엘 주위겠지만 기술적 우위와 수적 우위를 주장하고 있으면 다른 동맹국이 필요하게 된다.

파이브 아이즈 이외의 나라에 있어서는, 정보데이터가 미·영에 빼앗기느냐, 중국에 빼앗기느냐의 차이밖에 없고, 어느쪽에 빼앗기는 것이 더 나은가 라는 문제가 된다.

일본과 유럽의 주요국은 파이브 아이즈측에 붙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일·독등의 나라에서는 안전 보장상 미국과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판단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 수집 세계에서는, 파이브 아이즈-그 외 국가들 이란 구도가 실패였다.

더욱이 최근 보도에서도 독일은 화웨이사의 기기에서 정보유출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국내의 5G(제 5 세대 이동통신시스템)통신망의 입찰에서 동사를 반드시 배제하지 않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이 스노덴 사건이후, 파이브아이즈 제국과의 독불 사이에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메르켈 수상의 휴대전화가 파이브아이즈 제국에 도청되고 있던 것이 커다란 화제가 되어, 독일정부는 복잡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지금까지 메르켈 정권은 몇번이고 독일의 파이브아이즈 가입을 미국에 타진해 온 경력이 있지만, 그 요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마도 독일정부는 이번의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도, 파이브 아이즈 제국에 어떤 타협을 내놓은 전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 미국을 비롯해 파이브 아이즈 제국 쪽도 여유가 없어진 인상이고, 사이버분야 이외에도 일독불과의 연계를 희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예를드어 미국 공군 우주 사령부는 10 년 이상 앞을 바라 본 우주 전략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종래 여기에 참가가 허가 된 것은 파이브아이즈 제국만이였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 월에 '헤이세이 31 년(2019 년)도 이후에 관계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해서'를 발표했지만, 그 안에도 역시우주·사이버 영역의 강화가 담겨져 있다.

일본은 우주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예산을 짜서, 그 기술도 높지만, 사이버에 관해서는 좀처럼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이버 대책비는 일본의 40 배라고 하지만, 미국의 국방예산이 일본의 14 배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사이버 대책은 저조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사이버 정보수집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욱 저조하며, 앞으로는 뭔가 전략과 지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술한 사이버 공간을 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과 정책적 우위성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방침을 기본으로 화웨이 문제의 대응과, 금후의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의 파이브아이즈 제국과의 연계를 목표로 해 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사이버 공간이 미-중으로 양분화 된다면, 역시 미국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어느쪽이라고 하더라도 화웨이 문제는 산업상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치와 안전 보장상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원칙을 감안한 후에,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타니 켄 小谷 賢(일본대학 위기관리학부 교수)

2.미국 주가 상승으로 연휴 다음날 일본 주가 동반 상승. 축하 분위기속 매입 기대(LIMO, 2019.4.29)



10연휴를 앞두고 매입주저, 시종 소폭 움직임

2019년4월26일 닛케이 평균주가의 증가는 전날보다 48엔 85전 보다 낮은 22,258엔 73전이 되었다. 전주는 2018년12월5일 이후 약 4개월만에 22,000엔대를 회복. 또한 지난주 24일에는 한때 연중 최고가를 갱신하는 장면도 있었다.

그러나 연휴를 앞두고 주요기업의 2019년 3월 결산발표가 본격화 되기 전에, 투자가 사이에서는 매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주말에 걸쳐 주가가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보였다. 헤세이 마지막 거래가 된 주였지만, 전반적으로 소폭의 가격변동이였다.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국내는 다음주 황위계승에 따른 연휴로 시장은 휴장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시장이 휴장중에도 해외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발표가 가득하다. 30일에는 4월 중국 제조구매 담당자 경기 지수(PMI)가 정부판·민간판에서 동시에 발표된다. 30일에는 미국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 맥도널드 등 주요기업의 결산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1일은 아시아와 유럽 시장이 노동절로 휴장이지만, 미국시장은 움직이고 있기에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및 콜린 파월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2일에는 영중 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 발표, 3일에는 4월의 미국 고용통계 발표가 있다. 연휴가 끝난 국내 증시도 이런 결과가 반영되는 움직임이 될 듯하다.

다만 미국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리스크가 일어나기 보다는 동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6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우 공업주 30종 평균은 3일만에 반발하고 고가권에서 마쳤다. 해당 배경에는 미국 실질 국내 총생산(GDP)의 발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았던 적이 있다. 하이테크 주의 비율이 높은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 S&P500종 주가 지수는 모두 과거최고치를 갱신했다.

또한 신천황즉위 '레이와(令和)'로 연호가 개원 하는것조차 환영의 분위기가 될 것 같다. 일단 위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상황이다.

200일 이동평균선과 25일 이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임박

지난 주의 움직임을 테크니컬면에서 되돌아 보면, 결론적으로 소폭의 가격변동으로 거의 오르내리지 않았다. 증가 기준으로 등락폭은 107엔, 촛불 발의 수염을 포함하더라도 상하 200엔 정도 가격차의 움직임 밖에는 없었다.

그동안 1개월 정도 사이에, 3월 4일치 고가(21,860엔)와 3월25일 저가(20,911엔)의 1,000엔이 안되는 작은 폭에서 밀고 당기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에 겨우 해당 몸싸움에서 빠져나와 한단계 위의 스테이지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이 기대되었지만 가격 움직임은 미미했다.

다만 상한가는 비교적 두터워, 당장 의식하기 쉬운 22,000엔대로 하락 하는 양상은 없었다.

과연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차트의 형태는 상승 환율로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고 25일선과 75일선이 함께 위를 향하고 있으며 이어 200일선에 25일선이 다가가고 있어, 얼마안가 25일선이 200일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 골덴크로스가 형성될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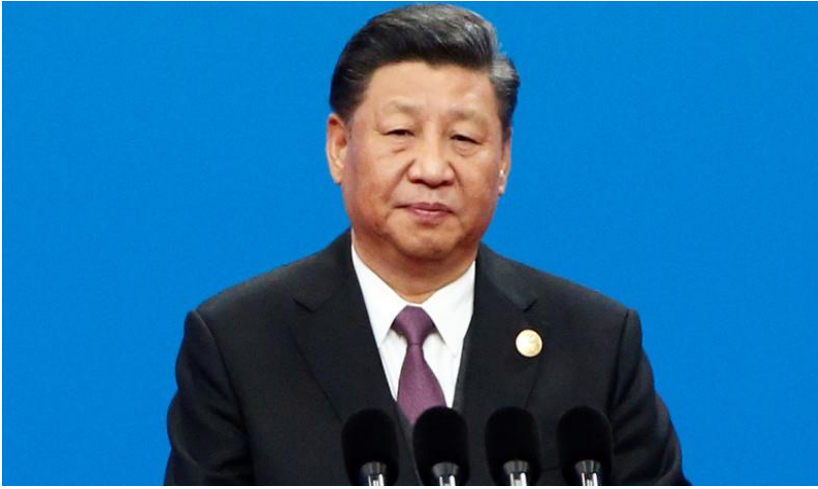
연휴가 끝난 후 지난주 상한가를 누른 22,300엔 부근을 상회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갈 만한 상황이다. 그 경우 상한가 목표는 12월3일 고가(22,698엔)에서 당장 의식하기 쉬운 23,000엔이 될 것이다.

다만 10일 연휴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 연휴 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경계가 필요하다. 그 경우 하한가 목표는 4월 12일과 15일 사이에서 21,878엔이 될 것이다.

시모하라카즈야끼 下原一晁

3. '일대일로' 국제싱크탱크 결성을 제창; '신(新) 유엔'을 세울 기세

(yahoo, 2019.4.30)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대일로' 글로벌 싱크탱크 협력위원회 결성을 제창했다. 마치 세계를 '붉은 사상'으로 통일해, 유엔을 대체할 기세이다. 일대일로 글로벌 싱크탱크 협력위원회

세계 150 개국 대표(그중 37 개국은 정상. 그외는 정부고관) 및 90 이상의 국제조직의 대표, 계 5000 명으로 구성되는 제 2 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이 25 일에서 27 일의 일정

4 월 26 일, 제 2 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 개막식에서의 연설
으로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은 정부고관 파견을 미루었다.

해당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을 했다.

중국어로 약 4300 문자의 연설중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일대일로' 글로벌 싱크탱크 협력위원회의 결성을 호소한 것이다.

시진핑은 '앞으로 5 년간에, 중국은 '일대일로' 를 함께 건설할 국가의 정당과 싱크탱크 혹은 민간 조직 등으로부터 1 만명의 대표를 초빙해 중국에서 교류를 도모할 작정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들은 더욱이, '일대일로' 글로벌 싱크탱크 협력위원회와 신문협력연맹등 기구를 여러분과 함께 건설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집결하려고 생각한다' 고 호소했다.

그리고 상투구인 '인류 운명 공동체' 를 함께 구축해야하며 추진해 갑시다 라고 맺고 있다.

이 '글로벌 싱크탱크 협력위원회' 야말로, 2018 년 1 월 17 일자 < '차이나·이니셔티브' 에 둘러싸인 일본>에서 서술한 중국의 전략을 구현화한 것이다. 해당 컬럼에도 있듯이, '차이나·이니셔티브' 는, '서쪽의 가치관' 을 대신해, 중국이 글로벌경제를 지렛대로 '베이징발 세계의 가치관' 를 만들어 내어, 한번에 중국으로 기울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 때문에 관계각국의 정당속에서 '키퍼슨' 을 찾아내어, 그 사람에 '타겟' 을 맞추어 쇄뇌해 가는 것도 수단의 하나이다.

시진핑이 연설에서 '각국의 정당' 이라고 말한 것은, 주로 '정권여당의 정당' 이며, 정확히 자민당 니카이간사장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시진핑정권은 하이테크 국가전략 '중국 제조 2025' 를 완수해, 어떻게든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대일로' 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나라를 '친중' 으로 기울게 하려는 전략을 짜왔다.

그 전략은 이번에, '일대일로' 글로벌 싱크탱크 협력위원회' 구축에 의해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샤프 파워’ 라고 칭하고 있다

2017년 11월, 미국의 싱크탱크 ‘전미 민주주의 기금(NED =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은 논문을 발표해, 중국의 이 힘을 ‘샤프 파워’로 임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격하게 중국의 ‘쇄뇌 활동’을 경계하게 되었다. 하이테크 국가전략 ‘중국 제조 2025’에 있어서만이 아닌, 정신면에서도 중국이 세계 패권의 수단으로서, 코민테른과 같은 쇄뇌를 실행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잠복해 정권 여당의 핵심을 농락시켜 간다.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무용와 연극, 중국어 학습등의 ‘문화’의 옷을 입혀 중국 공산당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소프트파워’이다. 그렇다면 ‘공자학원’은 어떤가. 이것은 ‘문화’의 영역을 넘어, 확실히 ‘스파이 활동’에 가까운 학술교류를 통해 ‘예리하게’ 상대국의 중추에 파고 들어간다. ‘칼과 같은 예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프’라는 말을 고른 것 같은데, 2018년 2월 20일자 컬럼 <공자학원이 이미 FBI 수사 대상으로>에 썼듯이, 미국에서는 곧바로 FBI(미연방수사국)가 공자학원을 스파이 활동과 프로파간다 활동등의 용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공자학원을 방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제의 컬럼 <중국에 유린된 니카이간사장- ‘일대일로’에 먹혀버리는 일본>에 썼듯이, 마치 ‘그림에 그린듯이’, ‘훌륭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일본은 그대로 중국의 술수에 걸려 들어 있는 것이다.

전미민주주의기금의 논문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포함해 ‘하드 파워’와 구별해서 ‘샤프파워’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모든 기축에 흐르고 있는 것은 ‘경제력’이 아니겠는가.

◆중국정부가 미디어가 일제히 니카이간사장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

4월 25일, 중국정부의 통신사인 신화사가, 인터넷판 ‘넷이즈(新华网)’은, 정권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간사장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크게 실었다. 니카이씨가 얼마나 일찍부터 ‘일대일로’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또 ‘일대일로’ 구상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절찬하는 기사이다.

니카이씨는 이 인터뷰에서, 일대일로에 관한 ‘제 3국 시장에서의 협력’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강조하고, ‘작년 10월에 아베수상이 방중했을 때는, 일-중 양국의 수많은 친미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본측 민간기업 관계자는 500명규모), 수많은 협력 의향서(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중협력이 국제규범에 합치할 뿐 아니라 제 3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우리들은 이 관점을 기축으로 해서 일중기업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대일로’에 관해서 일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역할은, 정확하게 니카이씨가 말하고 있는 ‘일-중 협력이 국제규범에 합치할 뿐 아니라 제 3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그 증거로 넷이즈의 이 단독 인터뷰는 중국정부의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의 학술적인 웹사이트에도 전재되고, 또한 서민이 읽는 ‘百家号’ 등에도 전재되어 전중국 인터넷을 망라해, 영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온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정권여당의 자민당이, 스스로 자처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지위까지 올라가기 위한, 중국의 기세를 가속되도록 힘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유엔을 대체할 기세

같은 4 월 25 일자의 '일본이 제창하는 제 3 국 모델' 을 강조하는 넷이즈 정보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126 개국과 29 의 국제조직이 '일대일로' 의 협력문서(중국어 : 합작문건, 일본어 : 각서)에 서명하고, '일대일로' 의 이념과 주장은, 유엔과 G20, APEC 및 상하이 협력 조직등, 중요한 국제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 는 것.

유엔 가맹국은 2017 년 10 월 현재로 193 개국이다. 가맹국 수에서 보더라도 유엔가맹국에 맞설 기세이다.

4 월 24 일 중국공산당계의 신문 '참고 자료' 의 정보에 따르면, '일대일로' 와 페어로 활동하고 있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참가국은, 현시점에서 97 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AIIB 에 참가하지 않는 곳은 G7 은 일본과 미국, 캐나다만으로, 중국은 영국을 최초로 함락시킴으로서 G7 을 무너뜨리고 있다. 일대 일로에는 3 월말 이탈리아가 각서에 서명해 G7 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국이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53 개국과 'BRICS+22 개국' 및 '발전 도상국 77 개국+China(중국어에서는 '77 集團+中国') 를 중국측에 끌어 당김으로서, 전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문 < '중국 제조 2025' 의 충격> 제 5 장에서 상세히 기술했다. 마치 '신유엔' 을 세울 기세이다(p.252)라고도 썼다.

그 증거가 이번의 시진핑 연설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덤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 을, 새롭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연설에서는 '녹색 발전 국제 연맹' 을 설립하려고 제창하고 있다. '녹색' 이란 '그린' , 즉 '환경 보호' 이다. 채무의 덩어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대일로 지속 발전성 도시 연맹' 도 결성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엔에서조차 '탈퇴한다' 라고 으름장을 부리고 있다.

그것도 시진핑에는 유리하게 움직여, 중국은 현재의 유엔에 대체해, 중국이 '일대일로' 에 의해 글로벌 경제를 지배해, 사상·선진문화까지 적화(친중화)시켜서, '신유엔' 이야기를 세계에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중국에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는 것을 자각하길 바라며 갈망한다.

1992 년 천황 방중으로 인해, 천안문사건에 대한 서방제국의 대중 경제봉쇄망을 해제시켜 버렸다. 일본이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중국이 지금 '경제대국' 이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안겨서 '일대일로' 까지 협력하려고 하고 있다.

아베수상은 시진핑국가주석의 방일을 실현시킴으로서 '중국과의 셔틀 외교' 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외교력을 어필하려고 하고 있다.

한심스럽지 않은가---

일본에는 '외교전략이 없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1 월 21 일자 컬럼 <일리교섭: 일본의 대러 대중 회교 패배(1992)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에서 상세히 적었다.

엔도 호마레 遠藤譽

4.미국이 채색하는 중국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한반도의 미래 (JB PRESS, 2019.4.30)

동북아시아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 미래는 깊은 안개로 뒤덮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북-미관계, 미-중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추이될 것인가, 전혀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 회담은 아무 합의가 보여지지 않은 채 끝났지만, 북-미 협상자체는 계속되고 있어 결렬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토대로 향후 협상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다른편에서는 미-중 양국 간에 있어서 무역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당초는 3월말에도 미중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었던 차에,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면서 정상 회담도 언제 이루어질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해 10월의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의 대중 강경 연설을 보고 '미-중 카싱 냉전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다'라고 향후 전면 대결을 예측하는 논조의 코멘트도 있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쉽게 타협할 지도 모른다 라는 기사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론을 듣고 있다면, 북-미와 미-중의 양국간 관계, 특히 해당 정상간의 거래를 개별로 논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북-미관계와 미-중관계가 상호에 어떤 영향을 서로 주는가를 논하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본래 이 2가지 양국간 관계는 밀접하게 서로 관계하고 있기에, 동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이 앞으로 대응방침을 생각할 경우에는 일체의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사에는 일본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시점에서 앞으로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 요인으로 금후 어떤 우선순위로 전략을 세워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고찰해 보려 한다.

또 아울러, 향후의 미국의 대북, 대 중국 정책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축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냉정한 전략적 계산에 근거해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보다 직감적인 교섭술에 근거해 혹은 국내에서 자기의 입장을 좋게 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그때그때의 정책을 내고 있다는 것이라는 견해도 유력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언급하려 한다.

■ 북-미와 미-중, 어느쪽이 지배적인 관계인가?

북-미, 미-중이라는 각각의 양국간 관계를 개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 전략과 세계 전략이라는 대국에서 보고 있다면, 하나 명확한 것이 있다.

그것은 향후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북한 보다도 중국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는 대륙 간탄도탄(ICBM)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미국에 있어서의 안전 보장상의 위협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아래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 혹은 공갈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해당 국면은 한정된다.

아마 한국방위에 관한 위기속에서 밖에 그러한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하의 한국이 대북 용화정책을 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대미공격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300발 가까운 핵 탄두와 약 60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해군력을 비

롯데 통상 전략을 급격하게 증강시키고 있어,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착실하게 계속 강화하고 있다.

그것과 반비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전략적 라이벌로서 커다란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향후 세계 전략을 세워 나아가는데 있어 북한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첫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자명하다.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로는, 먼저 앞으로의 미-중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정하고, 그것을 유리하게 몰고 가기 위한 요인의 하나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향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응방침도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서술한 펜스 연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중국이 위법적인 수단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로서의 과학기술 능력을 높여, 그것을 배경으로 IT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있어서 세계를 능가하려고 하는 것에, 미국이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그런 인식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방침으로 임하는가에 있지만, 여기서는 알기 쉽게 양극단의 두가지 대응책을 생각해 보려 한다.

즉 대중 강경책과 대중 타협책이다.

강경책은 미-중간의 기술패권싸움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 싸움에는 누가 이기는가 결말 밖에 없고, 미국은 단호하게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동맹국과 연계해서, 군사면에서도 통상면에서도 중국에 압력을 계속 가해, 중국이 우위에 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타협책은, 현재의 미-중관계는 냉전간의 미-러관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 있다는 것을 인식한 위에, 중국의 눈에 거슬리는 지적재산 침해가 어느정도 억제되고, 무역 불균형도 허용범위에 머물면 이른바 윈윈의 공존관계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은 해당 양극단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겠지만, 그 흔들림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가 본 기사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하 순서대로 그것을 보려 한다.

■ 중국에 엄격하게 나아갈 경우, 대북에서는 쉽 것인가?

먼저, 미국이 대중 강경책을 채택할 경우이다.

미국은 무역교섭에 강한 태도로 임함과 동시에, 군사면에서도 남중국해나 대만 주변등에 있어서 중국의 군사활동을 견제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 때에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그렇게 움직인다.

만약 북한과의 사이가 험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충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게 된다면, 이 지역의 미군은 중국과 북한의 양쪽에 대해서 고도의 경계태세를 해야만 하고, 이른바 정면작전을 준비해야 한다.

반대로 북한과의 비핵화협약이 진전되고 남북간의 협력관계도 개선되어, 북한이 남침도 염두에 두고 있던 즉흥성이 높은 군사태세, 예컨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포병의 전방 전개가 완화된다면, 재 동북

아시아 미군은 거의 대중국작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중국에 대해 커다란 견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북한에 의한 남침의 위협이 없어진 한국이 북한과 함께 친중국적 입장을 취하며 미국을 따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중이 엄중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경속에서, 깃발색을 명확히 하여 중국측에 붙는다는 것은, 한국에 있어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선택이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납치문제도 해결한 다음에는, 일본에 의한 북한 경제지원도 기대되는 가운데,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과 북한은, 미-일양국과의 협상을 취하는 것은 피하고, 오히려 중국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지란 생각도 든다.

이러한 흐름을 전체적으로서 바라볼 때, 미국이 대중 강경책을 취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 다소 조건을 느슨하게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을 앞으로 진행하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과 타협할 경우, 대북에서는 엄격하게 나온다?

다음으로 미국이 대중 타협책을 채택할 경우이다.

중국이 지적재산 침해를 규제하고, 무역 문제에서도 양보해 군사적으로 도발적인 태도를 자제할 것을 기대하고, 중국을 책임 있는 대국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을 경우가 된다.

해당 대책이 효과를 보여 중국이 어느정도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틀 아래 국제경제 속에서, 또는 최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미중의 경쟁은 계속된다.

그 때,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과연 미국에 있어서 득일까?

전항의 강경책 경우와는 달리, 미-중이 경쟁관계에는 있어서도, 팽팽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환경 아래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간의 협력도 나아가 신뢰가 높아졌을 경우,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비호는 이미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 뒤 미 중간의 관계가 군사력도 배경이 치열한 갈등이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제적 라이벌 관계인이 되면 한국이 중국 쪽으로 이동해 가기로 외교·군사 면에서 큰 위험보다는 경제 면에서는 오히려 큰 기회를 낳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려할 것이다.

또한 우리 일본인의 일반적 감각에서는, 설마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본다면, 한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세계 경제를 한중일 블록이 지배하게 된다는 악몽이 머리에 떠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중국에 대한 타협책을 취한 후, 북한의 비핵화를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이 대중 타협책을 취할 경우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길게 보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것이다.

■ 결국, 금후 북미교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 정책과 대북 정책의 두가지 요인으로 좁혀 그 관계를 보았다.

물론 현실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 중국이 어떤 리액션을 할지, 한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지, 미국내정이 어떻게 얽힐지 등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후에, 미국의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그 때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속이라는 가장 예측 곤란한 요인도 관계된다.

하지만 본고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미-중관계와 북-미관계가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대결을 기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쪽이 좋고, 중국과 타협한다고 하면 북한과의 관계는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허나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반년전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실현하고, 양국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가 본고에서 지적한 듯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의식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보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올리려는 생각이 강하고, 대북도 대중도 모두 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 트럼프 대통령 자신, 혹은 정권을 군사 외교적으로 지탱하는 전략적 사고에 능숙한 스태프들은, 하수가 되면 한반도 긴장완화에서 중국 혼자만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지적 재산을 침해하고 세계적인 기술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결정적인 대립관계가 되는 것은, 군사면에서도 경제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미국으로서는 본고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대중 강경책과 대중 타협책 사이에서, 중국의 행방을 주시하면서, 이것에 영향력을 행사해, 결과로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대북관계는 대중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주가 아닌 종의 관계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화교섭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는, 그때 그때의 대중 정책방침에 영향을 받아, 그 앞길의 예상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중 협상의 행방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19년 2월의 하노이에 있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협상의 행방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질을 안 주었고,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중단할 수도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된다.

앞으로 트럼프 정권의 대 중국 협상방침이 정해지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보여질 때 비로소,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 관한 정권의 기본태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마쓰무라 고로 松村 五郎